



피땀흘려 증액한 새만금 예산 공사는 타 지역업체만 배불려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수목원 하도급 23건 중 전북 업체 계약은 1건
새만금수목원 정상 개원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서 예산 증액에 최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 사진)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예산 78% 칼질삭감과 관련, 도민들이 피땀 흘려 복원시킨 가운데 정작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타 지역업체만 배불려 배불려 배불려 지역업체가 또다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20일 이원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 계약 23건 중 전북자치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계약금액 578억2,700만원 중에서 지역업체 몫은 22억880만원(4%)에 그쳐 새만금 각종 사업이 타 지역업체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중에서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에 불과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도내업체 추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계약 기준으로 D업체가 추천받은 전북업체는 전체 23건 중 9건(39%)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입찰에 참여한 건은 3건(13%)뿐이었다.

실제 전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



은 단 1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대비 4%의 쥐꼬리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료 분석 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전체 3만7,962일 중 6,460일로 17%에 불과했고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라도 45.5% 수준인 1만7,634일에 그쳤다.

반면에 도내 업체인 익산 소재 진흥설비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에 달해 큰 격차를 나타냈다.

현행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북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D업체의 하도급 선정절차와 발주전략회의에서는 전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선정으로 한정하고 있

는 지역업체를 사실상 배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잼버리 대회 파행을 핑계 삼아 2024년도 부처요구액 대비 78%를 삭감하는 등 피땀을 흘렸지만 전북도민들이 적금 나서 같은 해 국회 최종심의단계에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등 지역민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을 위해 도민 전체가 피땀을 흘렸다”며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사업에서 전북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의 정상 개원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청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집행되는 대규모 공사비에 대해 전북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전북건설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 2024년에 65억원, 2025년에 582억원, 2026년에 87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현재 공정률은 34%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추진사업 만이라도 지역업체 몫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 아리랑’ 제창... 제45주년 도민의 날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45주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 아리랑’을 제창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 사우디로 확산”

김윤덕 국토부장관, 한-사우디간 도시·주택개발 분야 협력방안 논의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와 디지털트윈 분야의 협력에 대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화재,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운영 통합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11월 18일부터 리야드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로드쇼”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기술과 경험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뉴 무라바(New Murabba)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기업의 참여는 물론, 우리기업들이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한국형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 왕국 차원의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시민들에게 10만기구 공급을 위한 도시재개발 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10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의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한-사우디 간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로젝트에 약 500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한국의 협력을 통해 도시 운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도시·디지털트윈 기술이 사우디 도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은 리야드 메트로 등 사우디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사우디의 도시 및 주택 관련 프

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AI를 비롯한 첨단 IC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행정서비스와 도시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 기술과 건설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순창군’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씩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11면> 이번 공모는 지난 13일 전국 인구감

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북 7개 군을 포함해 10개 광역시·도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16일 1차 서류심사에서 순창, 진안, 장수 등 3개 군을 포함한 12개 군이 통과했고,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7개 군으

로 압축됐다.

공모 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은 국비 389억원을 포함한 총 973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만희 기자

한 줄 소식

민주 ‘언론·유튜버 가짜뉴스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개혁법 당론 발의’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

제22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5. 10. 24(금)
- 11. 2(일)

중앙체육공원